

日 '룻코산'·대만 '양밍산' 대도시 인접...자연림 보호 최우선



일본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내 대표적 관광지로 올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후지산(3776m)의 정상 모습.

(일본정부 관광국 제공)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③0 일본·대만 관리 사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31년 국립공원법을 제정하고,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세토나카이 등 1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30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으며, 국정공원(국립공원에 준하는 공원) 56개소, 자연공원 3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전체 공원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14.3%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일본 보다 30여년 늦은 1967년 3월 '공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같은 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첫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올해 3월 4일 무등산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21개로 늘었다. 무등산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100만년 넘는 대도시와 함께하고 있는 명산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전 세계 도시 중 인구가 광주시와 유사한 100만명 이상 200만명 이하의 도시는 28곳으로, 무등산처럼 도심에서 15km 이내에 높이가 1,000m 이상 2,000m 이하의 산을 지닌 도시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일본 고베시 인근 룻코산(931m)과 대만 양밍산 국가공원 등이 도심과 인접한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일본 룻코산=전 세계에서 일본 고베시(인구 150만명) 주변인 세토나카이 국립공원내 룻코산(맥)은 무등산과 비슷한 도심 인근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195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룻코산은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으며,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룻코산 일대는 등산, 탐방객이 많고, 대표적인 등산로만 13곳이나 된다. 이 외에도 무등산처럼 수많은 등산로가 개설돼 있다.

룻코산 일대는 국립공원 지정 전부터 호텔과 레스토랑, 식물원, 골프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개인별장, 각종 단체의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 탓에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룻코산과 무등산의 대표적 유사점 중 하나는 바로 벌채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녹화사업을 통해 자연림에 가깝게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심각한 벌채에 따른 산지 황폐화로 1895년(메이지 시대) 산사태가 발생한 룻코산은 1902년부터 녹화사업을 시작해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냈다. 무등산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벌거숭이 산이 됐다가 1960년대 들어 무등산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어느 명산에도 뒤지

■일본 룻코산

사유지 56% 친환경 공원 보호 한계
관리지침 광범위...법적 구속력 없어

지 않는 울창한 산림을 갖게 됐다.

룻코산 지역은 다만 국유지의 면적이 1%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56%에 이른다. 국립공원 지역 대부분이 행위 제한이 약한 보통지구(완충지역)로 지정돼 최근 들어 친환경 공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내 각종 시설과 도로(교통) 등도 매우 혼잡해 쾌적한 탐방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인근에 개발분이 일면서 룻코산 정상의 노화된 속소와 주택, 별장 등도 개축 및 재건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여력이 거세지자, 세토나카이 국립공원은 룻코지역의 특색 등을 감안한 관리기본 지침을 세우고 이를 준수토록 한 상태다.

관리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이용시설의 정비 및 각종 개발은 룻코산의 자연보호와 조화를 전제로 한다 ▲기존 레크레이션 시설의 이용행태를 자연친화형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차도 정비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만 추진한다. 룻코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등에 대해서는 경미한 토목공사를 제외하곤 터널화한다 ▲사방공사는 친환경적인 공법 선정 및 공작물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관리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는데다 사실상 법적 구속력도 없어 말 그대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국립공원은 국가관리제가 아닌 지역제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성(우리나라 환경부)과 현, 시 사이의 국립공원 보호 정책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등산도 기존에 관리해 오던 광주시와 국립공원 승격 이후 새롭게 관리하게 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각종 보호 활동이 어긋나기도 했다.

◇대만 양밍산=자연보호를 국가의 중요 과제로 선택한 대만은 1980년대부터 자연보호 관련 법규를 제정·강화하고 있다. 대만에는 7개 국가공원(국립공원)이 있으며, 국가공원의 용도지구 중 생태보호지역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 일본과 달리 적극적으로 국가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해 국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국가공원 중

■대만 양밍산

국가가 사유지 매입해 관리 권한 강화
年 예산 200억원...1100여명 환경 감시

무등산과 유사한 곳은 1985년 세 번째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양밍산이다. 대만 타이베이시 북쪽에 인접한 산악형 공원으로, 28만년전에 화산 폭발로 생성된 칠성산(1,120m) 등이 위치해 있다.

산림보호를 위해 평일에는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휴일에는 공원 셔틀버스 등 대형차와 지역주민의 차량만 허용하고 있다.

연간 탐방객이 1200만명에 이르고, 탐방객의 30%에 이르는 400여만명이 '머무르는 탐방'을 즐기는 등 산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감시 관리 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규직 55명, 가능직 25명, 계약직 22명 등 총 102명의 관리인원과 경찰대 30~40명,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환경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년 관리 예산만 200여억원에 이른다. 자원봉사자들도 공원직원과 같은 복장(의복 마크만 다름)을 입도록 해 관리 감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고(故) 강용운 작 '무등의 맥' (1983년)

캔버스에 유채(65x53cm·광주시립미술관 소장)



고(故) 강용운 화백은 호남화단에 추상 화백의 물꼬를 튼 선구자다.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의 내면적 세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강 화백은 구상과 비구상적 양식을 캔버스에 병치시켰다.

강 화백의 작품은 굵은 선과 빠른 붓질을 통해 강한 힘을 표현하고,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등의 맥'에서도 힘있는 선을 통해 무등산에 깃든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담았다. 이 작품은 내년 1월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되는 '예술가의 산(山)'전에서 만날 수 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